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Gabriel Kim 김가브리엘(명식) (510) 562-3843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thmschae@yahoo.com

사무실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standrewoak@gmail.com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 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106 회의실)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 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50			

이러다가 다 무너지겠다... ㅠ



[제 1독서] 지혜3, 1-9

[화답송] 시편126(125), 1-2, 4, 5, 6(◎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로마8, 31-39

[복음 환호송] 1베4, 14참조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 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복음] 루카9, 23-26

성가	8시 미사	입당 289	봉헌 217 213	성체 179 159	파견 287
	11시 미사	입당 289	봉헌 217 213	성체 179 159	파견 287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한국순교자대축일(9월 21일)		연중 제26주일(9월 28일)		연중 제27주일(10월 5일)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임루카(승원)	전베로니카(진영)	정스텔라(애리)	김말가리다(미숙)	김안토니오(휘)	전베로니카(진영)
제 1 독서	최베네딕토(환준)	허라우렌시오(순구)	정프란치스코(일환)	심마카엘(태규)	이바로로(명국)	최다니엘(대연)
제 2 독서	최베네딕다(수영)	김엘플레다(수연)	정글라라(영희)	심헬레나(승화)	정스텔라(애리)	문골롬바(지영)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루카 9, 23)

9월은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며 죽음을 당한 한국 순교 성인/성녀들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들의 행적을 기림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하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순교 성인들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모범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그중에서도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성녀 김누시아 루치아의 이야기를 통해 이 땅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 처녀였던 성녀는 피바람이 몰아치던 기해년에 천주교도들을 쫓던 형리를 스스로 찾아가 당당하게 자신이 천주교 신자라고 밝히며 옥고를 치르고 곤장형을 맞게 됩니다.

며칠 후 형리들은 그녀에게 천주교를 버리고 목숨을 구하라고 회유를 해보지만, 성녀는 죽어도 배반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배교를 권하는 것은 헛되이 시간을 보낼 뿐이외다. 내가 관청에 스스로 찾아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천주교인은 천주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는 것이외다!”

계속되는 심문에서 “너는 천주를 보았느냐?” 라는 형리의 질문에 성녀는 “시골 사람들이 나라의 임금님을 보지 못하였다고 임금님 계신 것을 믿지 않더이까? 나랏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 임금님이 계심을 믿을 수 있듯이, 천지 만물을 보고 이것들을 만드신 최대의 임금님이신 천주님이 계심을 믿는 것” 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성녀 김누시아 루치아는 비록 배우지 못한 시골 처녀였지만 자신의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죽음으로써 그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라고 하신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이 땅의 순교자들은 비록 자

신들을 핍박했던 인간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지만, 그들은 더 높고 깊은 진리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며,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도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순교 성인/성녀들과 같이 더 이상 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순교자들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선교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순교자 성월을 맞을 때마다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라고 목메어 노래하면서 단순히 그들을 칭송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장한 의미를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송태일 안셀모 신부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14년 신앙생활 지침**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코린1, 12,7)

생명의 말씀

시간 좀 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난 8월 16일 시복된 124위 복자(福者) 탄생과 더불어 1984년 시성된 103위 성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 덕분에 자랑스럽고 행복한 신앙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들의 당시 신분계층을 보면 농민, 공인(工人), 역관(譯官), 군인(軍人), 관리, 무직(無職)의 여성, 성직자, 회장(會長) 등 다양합니다.

그 중에 역관으로 성직자 영입을 위해 힘쓰던 유진길의 아들이었던 유대철 베드로(1827~1839)는 한국 순교 성인 103위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당시 13세)입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그의 마음속에는 순교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 스스로 관가에 찾아 갔다고 합니다. 좀 더 긴 인생을 살 수도 있었는데 나머지 시간을 하느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대건 신부님(1821~1846)도 20대 나이에 신부가 되어 1년 남짓 사제 생활 후 순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다른 모든 순교자분들께서도 결국 이 세상의 시간을 기꺼이 자신을 위해 남겨 두지 않고 내어 놓으셨습니다. 순교자들은 자신의 나머지 인생과 더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시간’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시간을 봉헌하는 것이 순교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이 돈이다.’라고 할 정도로 시간에 아주 인색합니다. 누군가에게 시간 좀 내어 달라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기 짝이 없는 요구가 되었습니다.

입에 붙어있는 말이 ‘바쁘다’, ‘시간이 없다’ 등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시간 없다는 말을 달고 살면서 바쁜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중요 인사가 된 착각조차 즐거워(?) 하기도 합니다.

자기만을 위한 시간 쓰기에 흥신 빠져서 삽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찾아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 요

리조리 골목을 헤매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당이 조금 외진 곳에 있고, 주차가 좀 힘들고, 걷는 시간이 걸린다면 너무 일찍 성당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술 한 잔 하는 시간은 두세 시간이 가볍게 흘러도 아깝지 않고, 성경 공부를 생각하면 시간도 없고 허리도 아픈 것 같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누군가 어려움을 말해줄 때는 왜 그리 바쁜 것 같은 일들이 머릿속 가득히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다음에 뵙죠...’ 하고 도망치듯 사리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에게 내어줄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인색함’은 우리 삶을 서로 삭막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하느님을 위해, 시간을 조금씩 더 내어 놓도록 합시다. 우리도 순교자의 후예답게 ‘시간 순교’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삭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강귀석 신부  
서울 대교구 명일동성당 주임

말씀의 향기

순교자와 마태수난곡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집전하셨던 103위시 성식 이후 30년째인 올해 2014년 124위 시복식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집전해 주셨습니다.

124위의 복자들은 한국 가톨릭 역사상 가장 초기 인물 들입니다. 당시 조선의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은 당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스스로 서학(천주교)을 받아들임으로써, 세계 역사상으로 선교사도 없이, 스스로 가톨릭을 받아들인 유례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오로께서 다마스쿠스에서(생전 보지도 못 하였건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과도 같습니다. 이후 신해박해(1791년) 등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박해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순교를 불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생적인 한국 가톨릭의 순교정신은 이미 1984년 시성식 이전인 1925년에도 시복식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초기 순교자들의 거룩한 삶을 기리며 본받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순교와 관련하여 저의 법학강의가 생각납니다.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범법행위를 하였다면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면책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과거 1960년대 납북된 어부가 북한방송에서 남한을 비방하고 공산독재를 찬양하고 귀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 어부들에게 기대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였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의 기대 가능한 수준을 상식이라고도 한다면, 상식적으로 순교는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앙인 저 개인으로서의 기대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상태는 심각해집니다. 순교가 진리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내놓는 일임을 알고는 있지만, 만일 제게 그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정말 가능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때 제게 늘 생각의 단초를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마태수난곡' 제61a곡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말씀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어두운 단조 조성으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때마다 나오던 현악기들의 '아우라' 표현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황금빛의 '아우라' 를 나타내는 현악기 소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바흐는 그렇게 아우라가 없는 인간의 육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지니시고 가장 고통스런 순간을 맞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표현으로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통해, 우리 초기 가톨릭 순교자들께서도 예수님의 길로 한걸음 다가가려는 용기를 내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패륜아로 질시 받으시면서 모진박해 속에서 고통스러우셨을 순교의 궤적이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미 멀리 동쪽 끝의 이 땅에, 신앙의 모범을 너무도 많이 모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의 신자로서의 의무는 '기대가능' 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병선 바오로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그리스도께서는  
열광자나 감상적 신봉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글\_호세 사라이바 마틴스 추기경  
/ 그림\_구민정 엘리사벳

## 루카 복음서

성경산책

###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루카 복음은 구체적인 수신인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이 진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목적도 발견하게 됩니다.(루카 1,1-4)

루카 복음의 저자는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루카 복음서 안에는 아름다운 비유들이 많이 담겨 있고(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 등), 마치 구원 역사를 옛날이야기처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저자는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 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는 표현으로 자신의 복음을 시작합니다. 사제인 즈카르야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에서 교부들은 사제가 봉헌하는 제물이었던 ‘(황)소’ 를 루카 복음서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루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보편적인 구원’ 입니다.하느님의 구원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생각입니다. 루카 복음의 족보(루카 3,23-38)는 마태오 복음과 비교할 때,아브라함을 넘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인간인 아담에게까지 소급됩니다.

구원은 하느님의 창조 때부터 준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습니다.(루카 4,24-27)

이러한 사실은 복음서의 마지막에도 잘 표현됩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역시 “모든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루카 24,47)

루카 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자주 이방인들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나 이방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보편적인 구원은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시작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대신 나자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이야기를 전합니다.(루카 4,16-30)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억압받는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곧 이미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주님의 은혜로운 해’ 는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통해 성취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루카 24,44 참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루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다른 사실을 전해 줍니다.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셨다.” (루카 6,13)는 복음서의 내용은 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루카 복음의 주된 독자는 이방인이었다가 신앙을 갖게 된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시각에 맞추어 복음을 전합니다.

한 분이신 예수님과 그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지만,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통해 복음서 저자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허규 신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천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목요일 저녁 8시

날짜		지 향	봉 헌 자
9월21일 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이케네스(상열)	가족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이카타리나(영순)	가족
	연	이카타리나(영순)	김데레사
	연	조바오로(병철)	조바실리오(진행)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노소피아(용례)
	연	박대건안드레아(월년)	유리디아
	연	김중화	정데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데레사(혜경)
	생	임루시아	김유릿다
	생	한수산나	김유릿다
	생	한대건안드레아(호종)	한안젤라
	생	문대건안드레아(재균)	가족
9월23일 화	연	최베드로(휘종)	가족
	생	고혜숙 생일	황안나
9월24일 수	연	부모님	박시몬(상일)
9월25일 목	연	이마리아(정재)	이시몬/아네스
	연	김사비나(옥순)	김안드레아(명환)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이사도요한(세호)가정	하늘의문 Pr.
	생	이아네스	이시몬
9월27일 토	생	고통받고있는모든이	성령기도회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1	189	27	297
헌 금	\$697	\$1,041	\$41	\$1,779

< 교무금 > \$2,400

양인심(9-10) 강수영(8-9) 남금지(9) 최상철(9)  
조관식(9) 최순일(9) 이완수(9-10) 김승희(9-10)  
소명환(9-10) 천종욱(9) 황현숙(9-10) 박일신(9)  
이선희(9) 허동원(9) 김정복(9) 최몽렬(8-9)  
육승주(9)

< 성소후원금 > \$260

소명환(9-10) 박일신(9) 김정복(9) 김세록(1-6)  
이선희(9)

< Bishop's Appeal >

김세록(1-12)

< 감사헌금 > -

< 2차 헌금 > \$639

~~~~ 오늘 간식은 권창모 미카엘 형제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4년 신앙생활 지침 :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코린1, 12,7)

- 공 지 사 양 -

◆ 전례안내 : 본당의 날 10월 5일에는 8시 미사가 없습니다. 11시 합동미사로 봉헌됩니다.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이 9월 29일입니다. 영적선물 봉헌서를 천교실에 비치된 박스에 넣어 주십시오.

◆ 2차 헌금 안내  
10월 5일 : Catholic Voice

- ◆ 모임
- \* 뜨락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호실
  - \* 기체조 : 매주 교중미사 후 대건회관 1회의실
  - \* 대건산악회 : 매주 화요일/문의 : 510-847-3014
  - \* 사목회의 : 9월 21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 \* 구역장회의 : 9월 28일 교중미사 후 107호실

◆ 오클랜드 성당 창세기 수료자 재교육  
일시 :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반  
대상 : 창세기 그룹공부를 수료하신 모든 분  
강사 : 조마오로 수녀  
장소 : 대건회관  
준비물 : 성경, 창세기노트, 해설서, 필기도구  
문의 및 등록 : 사무실

◆ 성장세미나(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제 :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1베드로 4:10)  
강사 : 한연흠 다니엘신부 (천주교 수원 교구)  
일시 : 10월 17일(금) 오후 4시 - 10월 19일(일) 오후4시  
장소 : The Jesuit Retreat Center, Lost Altos  
참가비 : \$260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 510-684-7207

◆ 오늘 오후 3시에 소방안전검사가 있습니다. 알람 소리가 크게 날 예정입니다.

| 9월 구역모임 |              | 고린도전서 13-14장          |
|---------|--------------|-----------------------|
| 1 구역    | 9월27일(토) 6시  | 신준 미카엘라 덕             |
| 2 구역    | 9월21일(일) 6시  | 정일양 안드레아 덕            |
| 5 구역    | 9월28일(일)식사후  | 대건회관                  |
| 7-1구역   | 9월27일(토) 11시 | 파운더스룸                 |
| 8-1구역   | 9월28일(일)미사후  | 박일신 바실리오(106호실)       |
| 8-2구역   | 9월27일(토) 6시  | UC Village Cross Rd.# |

◆ 빈첸시오 홀리스 140차 식사 제공 봉사  
일시 : 9월 25일(목) 오후 4시  
\* 14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 2015년 본당 달력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문의 및 신청 : 사무실 510-553-9434

-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 \* 경축이동, 한국순교자대축일(9/20) :  
한호중 대건안드레아, 최민우 대건안드레아  
송이웅 광현아오스딩, 번귀태 성우안토니오,  
문재균 대건안드레아, 장미은 효임골롬바
  - \* 마태오(9/21) : 이영기, 신현규
  - \* 빈첸시오(9/27) : 신우현

| 주일학교 소식                       |
|-------------------------------|
| - Sunday School 11:00 ~ 12:15 |
| - 영어미사 12시 30분                |

| 안국학교 소식                     |
|-----------------------------|
| - 9월 27일 : 교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대회 |